

Open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1 | 2024 NOVEMBE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이사야 60장 1-3절 -

칼럼 - 핍박과 선교

오픈도어 국제기도의 날 (IDOP)

국제기도의 날 초청

기도의 능력으로 폭력을 멈춰주세요

박해와 선교현장

- 니제르 (NIGER)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11월호 | 통권 271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김영복 목사

이사회: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문민환, 조민준, 임훈희,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김섯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칼럼 - 펍박과 선교

04 오픈도어 국제기도의 날 (IDOP)

06 국제기도의 날 초청

06 기도의 능력으로 폭력을 멈춰주세요

15 박해와 선교현장 - 니제르 (NI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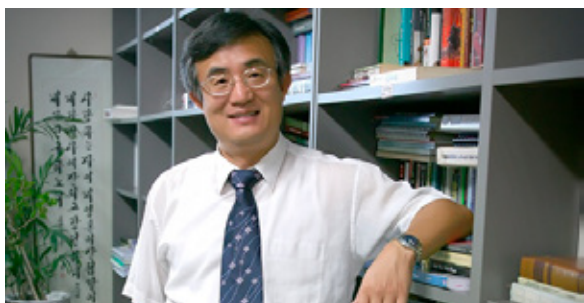
22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COLUMN

김성태 목사

(충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핍박과 선교

올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잔선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 주간 계속된 집회에서 수요일의 주요 주제는 핍박과 선교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국제 로잔 집행위원회가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세계 박해 지수 50개 국가 현황을 그대로 소개하고, 그 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도자가 로잔대회에 참가해서 교회의 핍박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연속 세계 박해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수요일 저녁에 서울대 김병연 교수가 북한의 일반적 현황을 소개하고, 목요일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의 대표인 박성민 목사가 북한의 지하교회 현황을 오픈도어선교회의 자료라고 소개하며 핍박 받는 북한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인 핍박 받는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팬데믹 전염병 기간에 염려하였지만, 후원금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에 놀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핍박 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돕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작년부터 후원금이 줄어듦,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예산의 대략 20퍼센트 정도가 마이너스 감소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우크라이나 사태는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더 많이 양산하고 있고, 오픈도어선교회는 이분들을 돕는 일에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도와야 할 실제적 예산들을 10퍼센트 정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픈도

어선교회의 역사상 이런 어려운 시기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중요 후원자들이 유럽과 미국교회의 교인들인데 우크라이나전쟁 및 기타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핍박 받는 교회를 돕는 일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교회들의 참여도는 미미합니다. 그나마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후원이 아시아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불과 5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의 핍박 받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돕는 일에 예산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된 모든 선교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를 돕는 전 세계 후원자들과 한국교회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로잔선교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는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수고와 헌신을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몇 대형교회와 로잔대회와 관련된 지도자들의 헌신적 참여 속에서 한국의 주류교단교회들은 단순히 방관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문 선교기구들도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집행위원회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교회 중심주의와 자기 왕국화 된 선교활동의 맨얼굴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 앞장서 수고해 준 교회들 가운데 전 세계의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후원하는 일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북한의 핍박 받는 현황을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핍박 받는 교회 지도자들처럼 북한 출신의 교인을 세워서 증언케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지하교회 할머니의 녹음된 기도 내용은 1990년도 초에 나온, 너무 오래된 자료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현황소개도 오픈도어선교회의 자료라고 했지만, 잘못된 통계수치입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의 대략 30퍼센트에 해당하는 5만에서 7만 정도의 수감자들을 기독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수효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핍박 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비율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헬 지역 남쪽 지대와 중앙아프리카 및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자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참상이 심각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적발이 되어서 수백 명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새롭게 제정된 법률 규정으로 반동사상 문화법, 청년 교

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보호법 등등과 대한민국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숙적인 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두 차례의 전원회의는 북한 전역에서 길거리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예고 없는 가택수색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기에 황해도, 평양, 평안도 지역의 여러 군데에서 지하교회와 숨어있는 교인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들이 우리 선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그루터기 뿌리 신자들의 지하교회 조직은 아니었지만 중국과 연계하여 신앙을 가지게 된 교인들이었습니다. 점차 증대하고 있는 핍박 받는 연약한 지체인 교회와 교인들을 돕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후원하시는 물질과 더불어 오병이여의 기적을 선교 현장에서 결실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도어 국제기도의 날(IDOP)

오픈도어 선교회에 대하여

1955년, 한 젊은 네덜란드인 선교사가 복음주의 소책자를 여행 가방에 가득 담아 공산주의 국가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그는 잊혀지고 소외된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책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교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 다음 구절을 마주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2절

그 사람이 바로 브라더 앤드류이고, 그 구절은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오픈도어를 설립하고 유럽을 가로질러 무수한 여정을 다니며 그의 폭스바겐 비틀에 성경을 싣고 비밀리에 나누어주었습니다.

사역이 확장 되면서 다른 필요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 뿐만 아니라, 전세계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리더십, 교육, 그리고 실제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오픈도어는 70여개 국에서 대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를 통해 수백만명의 박해 받는 신자들은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 받는 교회에 대하여

정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유로 차별, 제한 그리고 박해 아래 살거나 직면한 기독교인들

오픈도어는 매년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위험한 국가 50개에 대한 '월드와치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 목록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데: 전세계 기독교인들 중 7분의 1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박살내는 것'은 폭력 심지어 살해를 포함합니다. '쥐어짜는 것'은 압박, 배제, 차별, 그리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포함합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에 대하여

본 캠페인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 박해를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한 전세계적 캠페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본적 없는 규모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살인, 고문, 그리고 납치는 매일의 위협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전례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 전체를 걸쳐 160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해 받은 형제자매들은 버려진 것 같아 느낍니다.

캠페인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은 전세계 교회를 향해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함께 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이지리아 베누에의 교회 지도자 조나단 어그베데가 말하기를, "현실은 저희가 공격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도울 때 입니

다.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선포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캠페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2027년까지 400만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지원을 제공한다
- 백만 기도와 청원을 일으킨다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회복력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영향력 있는 교회를 본다

전세계를 향한 청원은 국제 공동체로 하여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 및 취약한 이들이 다음을 통해 위엄과 존중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촉구합니다.

1. 폭력적인 무장 공격으로부터 강력한 보호 제공
2. 공격자들에 대한 공정한 기소를 통한 정의 보장
3. 영향을 입은 공동체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회복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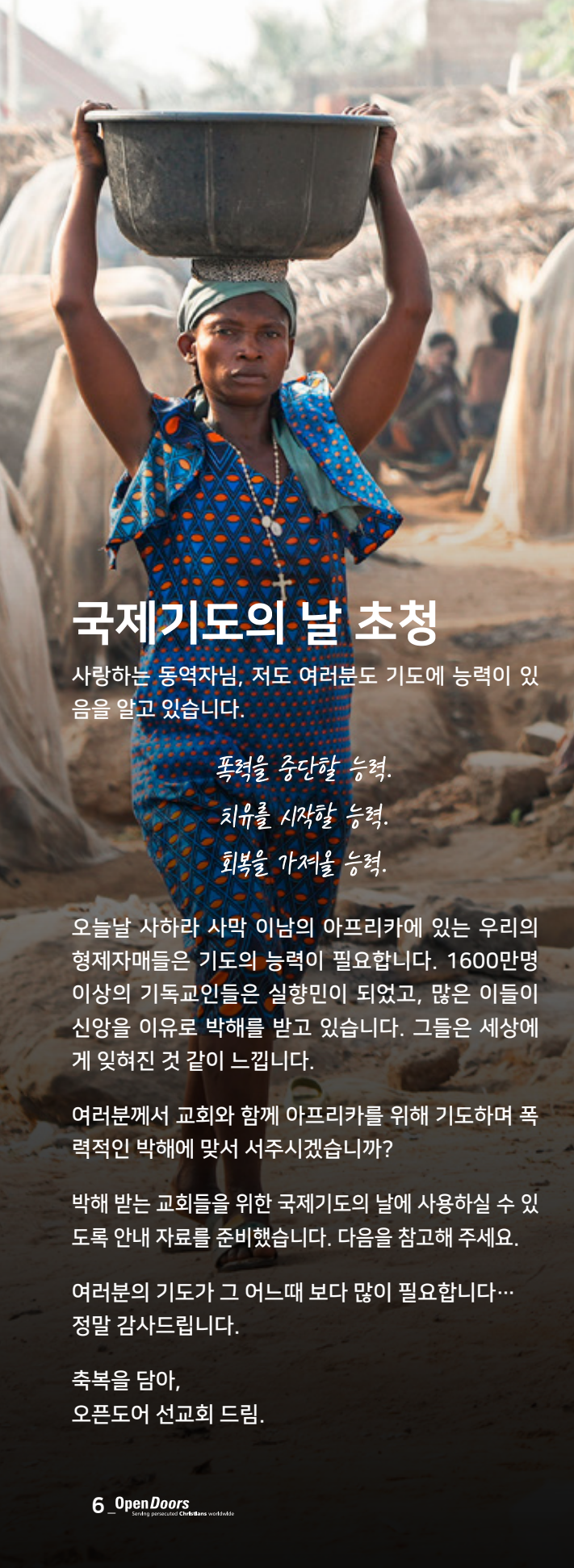
일어나라 아프리카는 오픈도어가 특히 아프리카 복음주의 협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 이사야 60장 1절 -

감사드립니다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폭력을 멈춰주세요

기도로 박해 받는 가족들과 함께 서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인들은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박해 받는 가족들과 함께 서 주시고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말יי쵸.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에 요청에 응하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교회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제기도의 날 초청

사랑하는 동역자님, 저도 여러분도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폭력을 중단할 능력.

치유를 시작할 능력.

회복을 가져올 능력.

오늘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1600만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실형민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게 잊혀진 것 같이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와 함께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며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서주시겠습니까?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어느때 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담아,
오픈도어 선교회 드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 야고보서 5장 16절 -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세상에 목소리를 내주세요.
교회를 위해 서주세요.”**

나이지리아 베누에 주 교회 지도자, 요한

160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갈등과 폭력으로 인해 실향민이 되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내 폭력적인 박해는 전례 없으며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잔혹하게 살해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납치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들로부터 조상의 땅을 떠나 임시변통의 난민 수용소의 작은 막사로 이주하도록 강요 당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매일이 생존하기 위한 분투입니다. 충분한 식량이 없고, 화장실이 거의 없고, 햇볕은 견딜 수 없는 열기를 내리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비통해하고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실향민 기독교인들은 수년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 처럼 느껴왔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이사야 58장 9절 -

불안과 불안정은 교회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변위의 위기, 교육의 위기, 그리고 보건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에 대한 해답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아프리카 교회와 함께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여러분과 교회에 호소합니다.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그들과 함께 서주시기를 말יי쵸.

오픈도어는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2027년까지 400만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회복력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영향력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교회가 한 줄기 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 기도하는 토고의 교회 지도자들*

예배 안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준비하거나 평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합니다. 한국오픈도어에서 예배를 위한 준비를 도울 수 있으니 선교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예배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 01.**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영상을 시청 합니다.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02.**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을 소개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나눠주세요.
- 03.** 기도로 모임을 인도해 주세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에 준비된 자료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04.** 기도와 정의의 나무를 함께 세워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05.**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정의의 나무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의 중심에는 기도와 정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이지리아의 국목 녹나무(camphor tree)의 영감을 받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교회들의 회복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 맺고 풍요로운 이 나무는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2).

기도와 정의의 나무도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내 박해 받는 교회들의 고통과
- 전세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응답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내 폭력적인 박해의 공포에 대해 알게 되며 녹나무는 아프리카 교회의 능력과 회복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만연함은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녹나무는 박해 받는 교회의 경험을 반영해주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요한계시록 22:2



향기

녹나무 잎사귀가 으스러질 때
장뇌 향을 강하게 방출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또한 극심한 박해 아래서도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몸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상처를 상기시켜 줍니다.

잎사귀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소원입니다
- 여러분 교회의 증보기도입니다.

회복력 있는 성장

녹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황무지에서 번창합니다.
이는 박해 받는 교회의 인내력과
회복력을 나타냅니다.

기도와 정의의 나무 동참하는 방법

어떤 활동인가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례 없는 박해를 주제로 하는 교회 예배 또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여러 이야기와 배경 설명에 대해 읽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교회에 나무를 세워주세요. 나뭇가지를 모아서 나열하거나, 판자 나무를 만들거나, 화면에 나무 사진을 올려 놓거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아래는 다른 교회들이 세운 나무입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기도와 정의의 나무 동참하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10월 월간지 앞 부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준비해주세요

월간지 뒤 부분에서 나뭇잎 그림을 사용해 기도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다양으로 사용할 때는 스캔 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도제목을 작성해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잎사귀에는 기도제목 또는 성경 구절을 써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잎사귀들을 같이 붙여주세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앞에 모여 기도해주세요. 개인으로 참여할 때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잎사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변화를 위해 호소해주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의의 나무를 세우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예배 또는 강의 시간에 초청해주세요.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이 혼자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일어나라 아프리카 기도 나뭇잎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붙일 기도 나뭇잎을 만들어주세요

안내

- 1 잎사귀를 오려 내 주세요
- 2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박해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작성해주세요
- 3 원하시면 성경 구절을 넣어도 좋습니다
- 4 교회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잎사귀를 붙여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가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의 중심에는 기도와 정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이지리아의 국목 녹나무 - 회복력 있고 늘 푸른 나무의 영감을 받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교회들의 회복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요한계시록 22:2

기도의 능력

기도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바나바 목사:

“여러분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신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 조나단 어그베데:

“저희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세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 서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소레 목사:

“기도는 진정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내쫓김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내쫓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저희가 기도할 때 기적을 일어납니다.

기도해 주시고 폭력의 희생자이자 실항민이 된 이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품을 제공하며 사역하는 구호기관들과 다른 단체들을 도와주세요.

입장을 취해주세요. 보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 의원, 정치 지도자들이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호소해 주세요.

저희는 다 함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폭력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폭력범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애통해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국제 단체들이**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에 있어 종교적 차원에서 의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지혜, 인도하심, 그리고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인내하고

회복, 인내, 결의, 그리고 충실함 가운데서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서 빛나도록 기도해주세요.

👉 **난민 캠프**에서 매일 같이 고통 받고 있는 그리스도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처벌 받지 않는 폭력적인 박해자들을 종식할 수 있도록 의지와 전략과 자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여러분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박해 받는 가족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전세계 공동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외 취약한 개인들이 다음을 통해 존엄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 1 폭력적인 무장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 2 공격자들을 공정하게 기소하여 정의를 보장하도록
- 3 영향을 입은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치유를 가져올 수 있게 (배상, 재활, 그리고 보상을 통해) 회복을 보장하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 이사야 60: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주님, 폭력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이들에게 말씀하며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음을
열어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앙을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손을 얹고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을 가까이
끌어 당겨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 히브리서 13장 3절 -



ARISE AFRICA

극심한 박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에게 선물 보내기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하다.

오늘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들과 함께 전례없는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 주세요.
이들과 함께 백만 기도 및 청원을 일으켜 주세요.
이들과 함께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해 주세요.

참여 방법

01. 목소리를 내 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에 서명해 주세요.

02.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기도제목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세요.

03.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제기도의 날 및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에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기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3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긴급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식량, 의복, 그리고 의료 돌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0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아이에게 한 달치 교육,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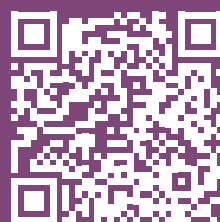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캠페인-Arise Africa



[자동이체 신청하기]

계좌입금:

아프리카 /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캠페인' 세 글자를 함께 넣어주세요)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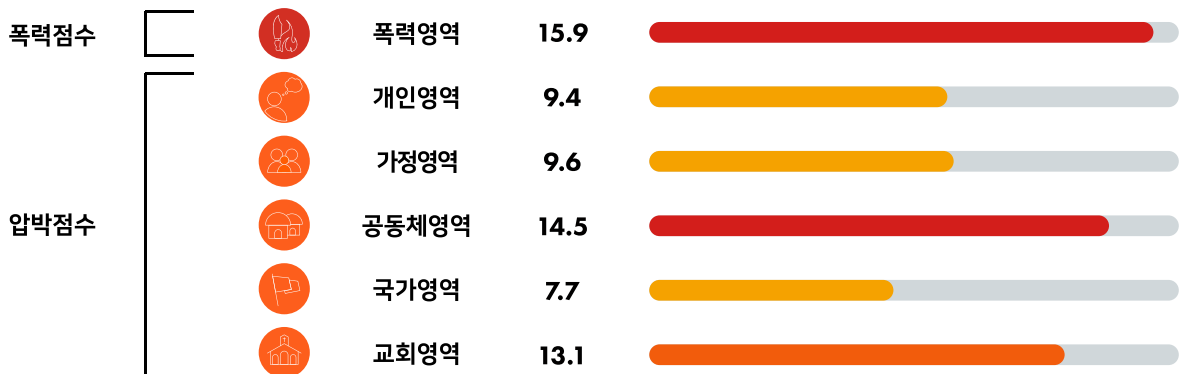
27위

니제르 (NIGER)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영역박해지수는영역별로 16.7점을만점으로책정한다. 영역별총합은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니제르 기독교인은 2023년 7월 쿠데타를 겪은 후 큰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그것은 니제르 정권이 서방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 때문에, 잔인한 전술로 악명 높은 바그너 단체가 쳐들어 올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전개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방면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1. 가족의 압박 :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버리라는 강한 압박을 끊임없이 당한다. 가족은 말로 협박하는 것부터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까지 이르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대될 때 이런 개인적 취약함이 더욱 가중된다.
2. 지하드의 위협: 니제르 서부와 남동부에 특히 지하드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공동 예배와 모임은 극히 위험하고, 폭력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종종 비밀리에 진행된다.
3. 고용 차별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더 밀려나고 지방 정부 공무원의 고용 기회가 기독교에게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직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승진 거부를 포함하는 제도적 장애는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4. 법적 장애: 교회 등록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길고 복잡하며, 정치적 격변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5. 새로운 위협: 바그너 단체는 민간인들에게 행한 잔학 행위 때문에 혐의를 받은 상태이므로, 그들이 진압할 경우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니제르 (NIGER)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

인구 : 27,066,000 명

기독교인 수 : 66,6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준대통령제



©Alamy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국가 상황

| 종교 상황 | 신자 수 (명) | 비율 (%) |
|-------|------------|--------|
| 기독교인 | 66,600 | 0.2 |
| 이슬람교도 | 26,096,000 | 96.4 |
| 불교도 | 873,000 | 3.2 |
| 힌두교도 | 49,200 | 0.1 |

출처²

니제르는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네 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언론의 자유와 정치 및 시민 단체의 평화적 집회가 개선되면서 민주화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2021년 4월에 취임한 모하메드 바조움 대통령은 니제르의 서부와 남부에게 일어나는 지하드 폭력을 억제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니제르는 이슬람 마그레브의 알카에다, 말리 북서부 국경을 따라 서아프리카 단결 단체와 지하드 운동, 나이지리아 남부 국경의 보코하람 등 여러 무장 이슬람 단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니제르 인구의 대부분은 티나니아, 또는 카디리야 수피 이슬람을 따른다. 그러나 이슬람 무장 세력은 살라피즘 (Salafism)을 옹호하기 위해 수피 계열을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오래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니제르 기독교는 주로 미국 선교 단체에 의해 소개되었다. 기독교인과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 남부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공격을 받는다. 기독교 여성들과 소녀들은 납치와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반면, 소년들은 무장 단체에 강제로 징집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3년 7월에 일어난 또 한 번의 쿠데타로 정치적 지형은 혼란스럽게 바뀌었다. 최근의 격변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복잡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

번 쿠데타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향하려는 진행을 약화시키기 위해 위협하며 이미 만연한 지하드 폭력을 잠재적으로 확대하여 니제르의 종교 자유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주요 도시 외곽 지역,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곳이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납치 당할 위험이 높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니제르에 만연해지는 이슬람 무장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 국경 근처 디파 주에서는 보코하람과 같은 무장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이 마을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안전을 위해 큰 도시로 피해야 했다. 이런 사건은 툴라베리 주에서도 목격되었다. 나이지리아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다수가 폭력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어떤 경우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압박이 개인 영역과 가족 영역, 그리고 공동체 영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부모와 친척들은 가족의 개종자에 대해 정부보다 더 심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급진 이슬람의 이맘과 교사들은 일반 무슬림들에게 개종자들과 개종자들에게 사역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이라도 발견하면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라고 가르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니제르에서 압박 받는 단체는 침례교, 복음주의, 오순절교단이다. 이들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 강도는 덜 하다.

²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씨족의 압력과 혼합된 이슬람의 압력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배반으로 간주되고,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이 발각될 경우 무슬림 가족과 지역 사회의 적으로 대한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내세웠던 세속 국가의 원칙은 압박에 의해 힘을 잃고 있다. 급진 이슬람 단체 이잘라 (Izala)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시작되었으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니제르에서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타리카 (아랍어로, "길" 즉 알라에게 접근하는 수피 방식)와 같은 다른 이슬람 압력 단체도 특징 지역 (예: 마라디와 니아메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잘라와 타리카는 소수 종교인들과 이슬람을 떠난 무슬림에게 압력을 가한다. 니제르는 다수의 무슬림과 소수 종교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니제르와 보코하람 사이의 분쟁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고 니제르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였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슈푸 전 대통령은 정부 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부패 방지 조치로 공무원과 그 가족,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계약 체결 시 이해 상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법률도 마련하였다. 민간 기업의 공직자에 대한 뇌물 수수는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부패는 사법부의 문제이며 처벌 받지 않는 면제 특권은 국가가 직면한 심각한 난제이다. 법을 어기고 부패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은 불리한 여론이 일어나도 제대로 기소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은 기독교인들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여성과 소녀들은 극단 주의자들에 의해 납치와 강간, 성 학대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강간의 경우에 가족은 수치심으로 장래 결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두려워 보고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여성 개종자들에 대해서 가족과 지역 공동체는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한다. 그들은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상속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무슬림과 강제 결혼을 해야 하거나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받는 압박지점: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이나 재산권 박탈
- 종교적 복장 강요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정에서 축출
- 가족에 의한 감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남성

남성 개종자들은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가택 구금을 당하기도 한다. 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사업이 보이콧 당할 수 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재정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그의 가족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또한 소년들은 납치되어 무장 단체에 강제로 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만 표적으로 삼는지는 불분명하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받는 압박 지점:

- 납치
- 사업/ 직장/ 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집에서 강제 축출
- 정부에 의한 구금
- 양심에 반한 군대의 징집
- 폭력-죽음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
|------------|-----------------|----------------------|
| 2024 | 27 | 70 |
| 2023 | 28 | 70 |
| 2022 | 33 | 68 |
| 2021 | 54 | 62 |
| 2020 | 50 | 60 |

니제르의 박해점수는 보고 기간 동안에 작년과 동일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 **이동의 자유 제한** :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에 심하게 방해 받고 있다. 이런 제한은 출근, 교회 예배 참석, 가족 및 친구 방문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 **폭력 표적과 납치** : 기독교인들은 계획적인 폭력에 표적이 되고, 그 범위는 언어 폭력부터 납치에 이르기 까지 광범하다. 이러한 납치의 의도는 보통 기독교 공동체 내에 공포를 조장하거나 몸값을 받아 내려는 데 있다.
- **기독교 재산과 건물 파괴** : 가정과 사업체를 포함한 기독교 재산이 고의적인 파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교회와 기타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건물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철거되고 있다. 이는 예배와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잃게 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참기 어려운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 구금을 당한 기독교인들 |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 추방당한 기독교인 | 강제결혼 당한 기독교인 |
|------------|--------------|----------------------|-----------|--------------|
| 2024 | 100* | 1000* | 10* | 100* |
| 2023 | 100* | 1000* | 10* | 30* |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Alamy

개인 영역

니제르는 국가적으로 종교는 사적인 일로 여긴다. 그러나 정교 분리의 국가 성격을 대항하는 이질라와 같은 급진 이슬람 단체에 의한 압력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 이 지역이 보코하람과 알카에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족 영역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극심한 적대감과, 이혼, 양육권 박탈을 당할 수 있고,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야 하거나 강간을 당할 수 있다. 기독교인 부모는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을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종으로 인해 상속권을 거부당한다. 개종자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은 이런 형태의 박해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

공동체 영역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고, 때로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이슬람의 통제에 영향을 받는 국경 지역은 기독교인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방 정부의 직장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드물며, 승진도 다반사로 거부된다. 니제르의 기독교 남성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해고 되거나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사업이 보이콧 당하기도 한다.

국가 영역

보코하람과 이슬람 국가 (IS)와 여러 급진 단체는 기독교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의 안전에 대한 결여는 기독교인의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지하드는 기독교인과 국가 당국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분쟁을 피한 기독교인들은 보소 (Bosso)와 예비 (Yebbi) 같은 IDP 캠프나, 남쪽 국경 너머 나이지리아의 마이두구리 (Maiduguri)와 올라 (Yola)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공격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교회 영역

무장 단체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공동 예배와 모임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현지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교회 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는 매우 길고 까다롭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니제르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 협약 (CEDAW)
5. 유엔아동권리 협약 (CRC)

니제르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 (ICCPR 제26조)
- 기독교이들은 흔히 신앙을 버리도록 구타와 압박을 경험한다 (ICCPR 제18, 10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 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할 수 있다 (ICCPR 제18조, 19조)
-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녀 양육권과 상속권을 잃는다. (ICCPR 제26조)
- 교회들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얻고 법적 인정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장애에 직면하다 (ICCPR 제 21, 26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 국무부 (IRFR 2022 니제르)에 따르면, "2022년 2월, 니제르 당국은 무슬림 성직자 알파 알리 부바카르를 체포하고 '공공질서에 해로운 정보 생산 및 유포와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는 정권에 반대를 표명하고, 툴라베리 지역의 보안 관리가 부실한 것과, 프랑스군의 주둔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였기 때문에 기소되었다." 주요 도시 중심부에는 주로 여호와 증인과 바하이가 거주하는데, 이들은 급진 이슬람 단체의 폭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너무 많은 관심을 끌거나 박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보하여야 한다.

오픈도어 니제르 사역

오픈도어는 2011년부터 지역 교회와 협력을 통해 니제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니제르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며, 섬기는 지도자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박해 대비 훈련
- 다문화 전도 및 새신자 돌보기 훈련
-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제자 훈련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 | |
|-------|---------------|---------|
| 선물번호: | 이름(예금주): | 주민번호: |
| 주소: | | - |
| 전화번호: |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 |
| 출금액: | 출금일 선택 5일 25일 | 출금동의서명: |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 | | | | | |
|---------|--|---------|----------------|------|--|
| 이름(예금주) | | 출금은행 | | 계좌번호 | |
| 주민번호 | | 출금액 | 20,000원 기타: | 출금일 |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
| 전화번호 | | 출금동의 서명 | | | |
| 주소 | | | | | |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